

■ 일반 ■

프랑스 파견무관(attaché militaire)¹⁾이 본 러일전쟁:
제0차 세계대전에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문종현

I. 들어가며

1894년 청일전쟁, 1900년 의화단의 난, 1902년 영일동맹을 거치며 동아시아의 열강으로 부상한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열강 중 하나인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은 러시아가 1903년 압록강 하구의 용암포를 조선정부로부터 강제로 조차하고, 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주둔한 만주지역의 군대를 철병하지 않으며 본격화되었다. 외교적 해결책으로는 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성은 높아졌고, 결국 1904년 2월 8일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정박 중이던 뤼순항을 일본이 기습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 만주와 조선을 둘러싼 제국주의적 패권 경쟁은 외교적 협상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1905년 9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개최된 포츠머스 강화회담을 통해 종료되기 전까지 대략 20개월 간 벌어진 러일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가장 대규모로 병력과 물자가 동원된 근대적 군사력을 갖춘 국가 간의 장기적인 전면전이었다.

1) 파견무관은 프랑스어로는 attaché militaire, 영어로 military observer 이다. attaché militaire는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참관자(observer) 자격으로 전쟁을 참관하는 무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러일전쟁은 식민지 전쟁이며 동시에 국제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식민지 전쟁의 성격은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전장이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 조선과 만주였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중립국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가 되어버린 중국이 입은 피해는 가장 컸다. 만주에서 포격과 처형 등으로 2만여 명의 중국인이 살해당했고, 가옥과 농지는 전쟁의 참화로 인해 파괴되었다.²⁾ 전쟁 이후 일본은 중국에서는 뤄순항과 만주철도를 장악했고, 조선에서는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해 식민지 확장의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는 러일전쟁이 식민지 전쟁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다.

한편, 전쟁의 국제적 성격은 영국, 미국, 프랑스의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전비 지원과 함께 개전 이전 양국의 외교적 협상의 과정에서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이 러일 간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에서 나타난다. 보불전쟁 이후 독일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프랑스가 주도한 1896년 ‘프랑스와 러시아의 동맹’과, 동북아시아로 팽창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1902년 ‘영국과 일본의 동맹’이 맺어진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적 충돌은 동맹국 양 진영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1890년 이래 전지구적으로 확대된 제국주의적 경쟁으로 말미암아 유럽 열강들 사이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었다. 평화는 단지 세력 간의 힘이 낡은 교착 상태에 불과했기 때문에 긴장의 배출구는 당연히 유럽 밖의 세계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발칸 반도 등 비유럽세계에서 열강들의 힘은 충돌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1898년 파쇼다 사건과 제2차 보어전쟁(1899~1902)을 거치며 절정에 달한 영국에 대한 적대 감정과 독일에 병합된 알자스-로렌 지방 수복을 염원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크게 성장하였다. 프랑스 외교부는 동맹국인 러시아의 군사력이 아시아로 이동함에 따라 유럽 전선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공백이 가져올 독일에 대한 억제력 약화를

2) Nish, Ian, *The origins of the Russo-Japanese war* (London & New-York: Longman, 1985), p. 2.

심각히 우려하였다. 독일에 대항하는 프랑스의 전쟁전략에 있어 동맹국 러시아의 군사력은 필수적이었다. 프랑스의 외무부장관 델카세(Théophile Delcassé)는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을 중재하면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아시아로 집중되지 않고 계속 유럽 전선에서 독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속되기를 원하였다.³⁾ 프랑스는 러일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후까지 단순한 중립국일 수 없었다.

그리고 러일전쟁은 무엇보다 근대적 총력전(total war) 양상을 보인 최초의 전쟁이었다. 전장에 동원된 병력 규모는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보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러시아가 130만 명, 일본이 120만 명이였다. 전쟁 기간 중 발생한 일본 측 사망자는 약 8만 4천 명으로 청일 전쟁(약 1만 3천)의 6.5배에 달했고 러시아는 약 5만의 병력을 잃었다. 또한 20여 개월에 걸친 장기화된 전쟁으로 인해 전비는 예상했던 규모를 압도적으로 초과하였다. 일본은 전체 전쟁 비용으로 19억 8400만 엔을 투입하였고 러시아는 1904년 5억 2천 6백만 루블, 1905년 10억 9천 9백만 루블을 각각 지출하였다. 러시아의 전비는 전체 예산에서 1904년에는 22.9%, 1905년에는 47.9%에 달했다.⁴⁾ 1909년에 이르러서야 러시아는 겨우 전쟁이 낳은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청일전쟁에 비해 대략 8.5배가 많은 전비를 소모한 일본 역시 전비의 대부분을 미국과 영국의 차관(12억 엔)에 의존하였다. 국가재정에 비추어 압도적인 규모의 전비를 소모한 일본에서 전쟁 후 국민의 세금 부담률은 청일전쟁 이전의 4배로 치솟았다. 러일전쟁은 막대한 전비와 물자, 인력의 손실을 가져왔고 국제적인 군사동맹국(러불동맹과 영일동맹) 사이의 충돌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0차 세계대전'이라 불리기도 한다.⁵⁾

3) Renouvin, Pierre, *La Question d'Extrême-Orient: 1894~1905* (Paris: Centre de documentation universitaire, 1952), p. 53.

4) *ibid.*, p. 463.

5) 이주천, 「러일전쟁 110주년을 기념하여-과거 10년 동안의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33 집(2014.12), 223-224쪽; Steinberg, John W. et al.,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world war zero* (London: Brill, vol. I, 2005), pp. 20~21.

전쟁 상황을 매일 생중계한 신문 기사를 제외하더라도 러일전쟁 관해 프랑스에서 출간된 서적과 논문은 1904년에서 1920년까지 대략 171종에 달한다. 이 중에서 미래 전쟁을 예견하며 새로운 군사전략을 연구한 서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불과 10여 년 전에 발생한 러일전쟁은 이미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는 총력전 양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러일전쟁을 통해 총력전의 씨앗을 발견한 프랑스의 군사전문가, 군인, 지식인은 없었다. 프랑스 전쟁부(Ministre de la Guerre)⁶⁾조차 다가올 세계대전에서 나타날 새로운 전쟁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유럽의 열강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벌인 식민지 전쟁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대규모 피해를 낳은 러일전쟁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러일전쟁에 관한 다양한 군사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군부는 왜 제1차 세계대전의 양상을 예견하지 못하였을까? 이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러일전쟁 전후에 생성된 프랑스 외교부, 전쟁부의 문서들과 만주의 전장에 파견된 프랑스 파견무관이 남긴 기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904년 전쟁발발과 동시에 유럽에서는 수많은 종군기와 파견무관들이 만주에서의 전장을 생생하게 관찰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프랑스 파견무관의 임무는 첫째, 동맹국인 일본군과 싸우는 러시아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둘째, 언젠가 발발할 수 있는 미래전쟁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임무를 가진 파견무관의 기록을 통해 러일전쟁이 지닌 국제전, 식민지전쟁, 총력전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6) 프랑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육군을 지휘하는 전쟁부와 해군을 지휘하는 해군부(Ministre de la Marine)로 국방을 담당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다.

II. 프랑스 외교부와 전쟁부의 전쟁 전망

러일전쟁 당시 프랑스의 외교부 장관, 델카세는 보불전쟁 후 프랑스에게는 굴욕적인 1871년 프랑크푸르트 조약(Traité de Francfort)의 반대자였던 감베타(Léon Gambetta)로부터 정치적 후원을 받으며 성장한 인물이다. 그는 1898년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프랑크푸르트 조약이 낳은 결과를 극복하는 데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쏟았다. 알자스-로렌 문제로 인해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델카세에게 프랑스의 군사적 안보는 외교적 최우선 과제였다. 그는 독일에 대항하는 협력관계 수립을 목표로 열강들과 외교적 협상을 진행해 일련의 군사 동맹을 성립시켜 나갔다. 독일의 외교적 고립을 추구했고 쥘 페리(Jules Ferry)의 식민정책을 지지한 ‘식민지당(Parti Colonial)’의 일원이었던 델카세에게 모로코를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만드는 것도 프랑스 외교의 중요한 목표였다.⁷⁾

델카세는 1899년, 1900년, 1901년 연속된 협정을 통해 러시아와의 동맹이 가진 군사적 성격을 강화했다. 1899년 러시아와 체결된 조약을 통해 프랑스가 발칸반도에서 러시아의 정책을 지지하고 러시아는 알자스-로렌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을 지지하게 된 것은 프랑스 외교의 승리였다. 20세기 초 프랑스 외교부가 세운 극동아시아 정책의 주된 방향은 중립국의 위치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었다. 당시 프랑스 외교부의 목표는 첫째, 프랑스 ‘외교정책의 토대(pierre angulaire)’인 러시아와의 동맹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둘째, 동맹국 러시아와 영국 사이의 화해를 주선하며, 셋째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대표되는 광범위한 러시아 산업시설에 투자된 프랑스 자본을 안정적으로

7) Ganiage, Jean, *L'Expansion coloniale de la France : sous la troisième république (1871-1914)* (Paris: Payot, 1968), p. 234.

회수하는 것이었다.⁸⁾

러시아가 일본과의 전쟁 준비에 돌입함에 따라 러시아 육군과 해군이 만주로 파병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정부로서는 잠재적인 독일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 군대의 개입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출병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시작될 경우 프랑스의 중립 정책은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킬 수 있었고, 독일이 이러한 외교적인 갈등 상황을 활용하여 러시아와의 동맹을 성립시킨다면, 프랑스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낼 수 있었다.

1903년 가을, 델카세는 러일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였다. 그는 전쟁이 결코 프랑스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교활한 빌헬름, 그는 자유롭게 유럽을 수중에 넣기 위해 만주에서의 전쟁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나는 이 전쟁을 막아야 한다”⁹⁾고 러시아 대사 팔레올로그(Paléologue)에게 경고하였다. 만주와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프랑스로서는 전쟁이 유럽에서 초래할 결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2월 말부터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이 파국을 향하자 프랑스는 다른 열강들과 마찬가지로 1904년 1월 대사관과 자국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으로 함선과 병력을 파견하였다.¹⁰⁾

델카세는 1904년 새해 러시아 대사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을 우선적으로 소망하시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일 러시아가 유럽에서 손이 자유로워지고, 내가 영국,

8) Moon, JongHyun, *La guerre russo-japonaise (1904-1905) et une diffusion du péril jaune : Une étude sur les rapports entre la guerre et la représentation des Asiatiques* (These, Université Paris VII, 2014), p. 141.

9) Paléologue, Maurice, *Un grand tournant de la politique mondiale 1904-1906* (Paris: Plon, 1934), p. 2.

10) 1904년 1월 14일과 21일 베트남에서 출발한 파스칼(Pascal)호와 귀에동(Gueydon)호가 제물포에 도착하였

이탈리아, 스페인과 협약을 체결한다면 모로코는 마치 해산물처럼 우리의 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¹¹⁾라고 밝히면서 러시아에게 전쟁을 피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상과 같은 외교정책은 프랑스 전쟁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도 반영되었다. 러일전쟁 발발 직전 전쟁부는 전쟁의 결과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외교부에 제출하였다. 1904년 1월 1일 작성된 「1904년 1월 1일 극동에서 러시아의 상황(La situation de la Russie en Extrême-Orient au 1er janvier 1904)」과 1월 12일에 보고된 「러시아와 일본의 위기(La Crise russo-japonaise)」는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극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상황을 분석한 첫 번째 보고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 원인이 기본적으로 조선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다고 파악해 “러시아는 특별히 최남단의 항구를 장악하려는 듯 보인다. 일본은 장래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담보물을 손에 넣기를 원하고 있다”¹²⁾고 결론 내린다. 보고서는 일본이 전쟁의 결과를 비관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선에서의 영향력만을 고수하는 것에 외교적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였다.

두 번째 보고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의 해군, 육군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전쟁의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프랑스 참모부는 개전 3주 이내로 러시아는 총 20만의 병력을 전장에 배치할 수 있고 이후 5만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쟁이 발발하고 2달여가 지난 시점에서는 약 25만 명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이용하여 동원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군은 52만의 병력으로 구성된 13개 사단 중 10개의 사단 이상을 파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개전 후 12일에서 18일 사이에 일본군이 전선에 동원할 수 있는

11)Paléologue, Maurice, *Un grand tournant de la politique mondiale 1904-1906*, p. 224.

12)*Archives du ministère français des affaires étrangères*, “Japon”, NS-33, ‘La situation de la Russie en Extrême-Orient au 1er janvier 1904’.

총 병력을 25만에 불과하며 이후에도 최대 5개 여단만이 만주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와 일본의 위기」에서 보인 전쟁의 예측은 프랑스 전쟁부의 기대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 시베리아 철도의 수송능력은 형편없었다. 바이칼호를 지나가는 경로에는 철길이 완공되지 못했고, 완공된 철길도 단선에 불과해 러시아는 전선으로 병력과 물자를 보내는데에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양국의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규모와 예상된 전쟁의 기간은 크게 어긋났다.

전쟁부는 일본군의 군사적 능력에 대하여 “일본군의 보병은 우수하다. 대포는 우수하나 포병은 훈련되어 있지 않고 기병의 상태는 최악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결국 “일본군은 전쟁 발발 이후 4주 혹은 8주가 지나면 병력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고, 러시아군의 남하하는 전황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것”¹³⁾이라고 결론 내린다. 전쟁부의 보고서는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을 수송능력과 기병, 포병의 활용에 있다고 확신하였다. 특히,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는 근거로 기병력의 열세에서 찾은 점은 전쟁부가 근대적 전투양상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구식 기병 전술이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았지만, 러일전쟁에서 기병의 활약은 거의 없었다. 장거리 사격이 가능하고 연사가 가능해진 대포가 등장하면서 말은 전장에서 무용하였다. 또한 참호를 점령하고자 하는 군사적 목적에 기병은 쓸모가 없었다. 하지만 나폴레옹 전쟁의 기억에 사로잡힌 참모부 지휘관들은 기병이 수행하는 명예로운 돌격을 군인정신의 표상이자 효율적인 전투방식으로 간주하였다. 인간과 동물의 용기와 기세가 승패를 결정짓는 기병 돌격전을 열망하면서 전쟁 수행방식이 변화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기병의 중요성에 대한 선입견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한반도와 만주에서 특파원으로 활약한 잭 런던의 종군기에서도 발견된다.

13) *Archives du ministère français des affaires étrangères*, “Japon”, NS-33, ‘La Crise russo-japonaise’.

“일본인들이 타고난 기마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들 기병은 서양인들의 눈에는 우습게 보였다. 말이 조그맣지만 힘이 센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서양 말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도대체 일본인들이 말을 다룰 줄이나 아는 것인지 의아스러웠다. 그들이 한 손으로 말고삐를 꼭 잡고 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의 앉음새도 대부분 좋지 않았다.”¹⁴⁾

말과 일본군들의 신체에 대한 낮은 평가는 서구인들의 인종주의적 선입견을 보여준다. 용감한 남성성의 상징인 군인다움과 더불어 큰 말을 지배할 줄 알고, 잘 다루는 유럽인의 출중한 능력을 일본인이 지니지 못했다고 간주한 것은 군인적 열등성과 남성적 열등성을 부여하는 근거이다. 또한 작은 말에 볼품없이 앉은 작은 일본군은 커다랗고 멋진 말에 앉은 아름답고 용맹한 남성성을 띤 유럽인에 비해 아름답지도 못하고 더 잘 싸울 수도 없다. 러일전쟁 이전까지 일본은 서구문명의 교육을 받는 미성숙한 아동 또는 학생으로 재현되었는데 군사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¹⁵⁾ 프랑스 전쟁부의 시각에서 일본군은 유럽군의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조잡한 모방품에 불과했다.

일본육군에 대한 저평가는 일본해군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전쟁부는 전장이 만주와 조선에서 형성될 것이라 예견하면서 보급을 위한 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이 승패의 열쇠라고 예상하였다. 해상에서의 우위가 원정 전쟁을 벌이는 두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면서 “만일 일본군이 단독으로 혹은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의 해군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극동으로 진격하는 러시아군을 저지하지 못할

14) 잭 런던, 윤미기 역, 『잭 런던의 조선사람 엿보기: 1904년 러일전쟁 종군기』 (서울: 한울, 1995), 57쪽.

15) SIARY Gérard, “Images et contre-images de l’Extrême-Orient au Japon et en Occident”, *Revue de littérature comparée*, n° 297(2001), pp. 67-77.

것”¹⁶⁾이라 평가하였다. 참모부는 일본과 러시아의 해군력을 각각 20만 톤으로 계산하면서 “1904년 봄, 극동에서 러시아의 함대는 최소한 일본과 균형을 이룰 것이다. 러시아는 해군력의 균형을 이룬 시점에서 유럽에서 새로운 함대를 파견해 전황을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어떤 경우에도 단독으로 러시아에 대항할 수 없을 것”¹⁷⁾이라 결론 내린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러시아의 발틱함대는 정비와 보급 문제로 인해 1904년 10월이 되어서야 45척의 함선이 출항할 수 있었다. 또한 수에즈 운하가 봉쇄됨으로써 약 8개월을 항해해 겨우 1905년 5월 말에 되어서야 쓰시마 근방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1904년 8월 황해해전으로 러시아 극동함대가 괴멸되었고 휘순항마저 1905년 1월 함락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승전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상의 전쟁부 보고서는 전쟁 발발을 예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프랑스 외교부의 입장이 깊게 반영되었다. 외교부, 전쟁부 모두 전쟁이 유럽의 열강의 참전으로 인해 국제전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보고서는 극동에 주둔 중인 프랑스, 영국, 독일의 해군력과 육군력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이 일본군에 가담할 경우와 프랑스와 독일이 연합하여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를 모두 예상하면서, 만약 제3국이 전쟁에 개입한다면 일본의 우세를 점쳤다.

그러나 전쟁부는 “다른 열강들은 중립적인 위치에 머무를 것이며 특별한 호의를 내세우며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¹⁸⁾ 이상의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러시아의 승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군사적 우위로 인한 억제력이 일본의 외교적 양보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비록 “전쟁에서 승리할 지라도, 제3국이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약해질 것이다. 만일 일본이 패배하거나 전쟁이 승부를 결정짓지 못할 경우 일본은 강력한 군사력을 상실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16) *Archives du ministère français des affaires étrangères*, “Japon”, NS-33, ‘La Crise russo-japonaise’.

17) *ibid.*

18) *ibid.*

불투명한 전망 속에서 일본이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의심스럽다”¹⁹⁾라며 평화적 해결을 낙관하였다. 또한 프랑스 전쟁부는 일본이 해군력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가 장기화되면, 러시아가 병력과 군사력을 증원하여 공세를 전개해 일본 본토마저 위협에 빠트릴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외면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전쟁부의 견해와 외국대사관에 파견된 무관들의 보고서는 거의 동일하였다. 1903년 7월 극동아시아에서의 방문을 돌아온 프랑스 해군대장 아르망(Harmand)은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외교부 장관 델카세에게 전했다. 같은 해 11월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벨(Bayle)은 일본의 공격은 있을 수 없는(inconceivable) 것이라 확신하였다.²⁰⁾ 런던 주재 프랑스 대사관 무관인 아마드(Amade) 역시 10월 “현재의 극동아시아 상황의 매듭을 전쟁으로만 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영국은 재정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남아프리카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²¹⁾고 보고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사관 파견무관 몰랭(Moulin)은 10월 20일 전쟁부에 러시아의 전쟁부와 해군부가 “일본의 공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만일 일본인들이 현명하다면 결코 모험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러시아군이 만주에서 방어전 전략으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해군이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다면 승리는 확실하다며 “나는 해전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의심하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다”라고 썼다.²²⁾ 프랑스 외교부와 전쟁부는 일본의 근대적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면서 러일전쟁이 가져올 군사적, 외교적 파국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19) *ibid.*

20) *ibid.*, “Chine”, n° 197, le vice-amiral Bayle au Ministre de la marine, le 4 nov. 1903.

21) *ibid.*, “Japon”, NS-33, le lieutenant colonel d’Amade au Ministre de la guerre, le 10 déc. 1903.

22) France, *Documents diplomatiques français*, 2e série, T. IV, n° 25, le 20 déc. 1903.

러일전쟁의 결과는 유럽에 직접적이며 가시적인 변동을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열강의 균형에 해체를 가져왔다. 만주에서 러시아의 참패와 1905년 혁명의 결과 기존의 세력균형이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를 향해 각 세력은 재편되기 시작했다. 이후 유럽에 새롭게 등장한 열강 세력의 판도는 10년 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다. 러시아는 1905년 초 묵둔(Mukden)²³⁾과 쓰시마에서 패전하면서 무시할만한 세력으로 전락한 것은 아니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2류 국가'가 되었고 외교 전략의 무대를 아시아에서 발칸반도로 이동시켰다.²⁴⁾ 러시아가 기존의 군사 강대국 지위를 상실할 동안, 독일은 군비증강 10개년 계획을 실행해 러일전쟁 이후 유럽 최대의 군사,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델카세가 수립한 독일을 고립시키는 프랑스의 외교 전략은 러일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어 프랑스는 러시아와 영국의 협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새로운 유럽질서를 형성시켰다. 유럽에서의 새로운 힘의 균형을 모색한 델카세가 주도한 프랑스, 영국, 러시아 간의 삼국협상은 러일전쟁의 결과물이었다. 이후 삼국협상과 삼국동맹이라는 동맹진영 간의 대립은 제 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19세기 말 전쟁은 국가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정당한 폭력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졌다. 『전쟁론』으로 알려진 클라우제비츠는 정치권력이 합리적 계산과 결단으로 전쟁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근대적 전쟁은 관리할 수 없는 '우발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근대전쟁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라는 집단의 집단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지점에서 감정적이고, 돌발적으로 작동하였다. 결국 '정치'는 전쟁의 핵심요소였다. 합리적 계산과 결단으로 전쟁을 관리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전쟁으로 이르는 과정, 전쟁 수행 단계에서의 생산수단의 집결과 동원, 전쟁 후의 전후 처리 단계에서 '정치'는 핵심요소이다. 러시아는 1905년 혁명이 발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명백히

23) 봉천으로 불렸던 오늘날 선양을 의미한다. 봉천은 청나라와 만주국 시대의 지명이었다. 유럽에서는 러일전쟁 중 만주어 지명인 묵둔으로 알려졌다.

24) Kowner, Rotem ed., *The impact of the Russo-Japanese War* (London: Routledge, 2007), p. 8.

정치에서부터 실패하였다. 프랑스 외교부와 전쟁부는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국제정치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나 다가올 일본과 러시아의 ‘정치’를 파악하는데 실패했고, 총력전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은 더욱 부족하였다.

III. 러일전쟁에 파견된 프랑스 파견무관

19세기는 각국의 대사관에서 파견된 군인, 즉 파견무관의 전성기였다.²⁵⁾ 대부분 귀족 출신들로 귀족주의적 신념이 투철했던 이들은 평화 시에는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타국의 대사관에서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3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특권적인 위치에서 전투의 현장을 참관할 수 있었다.²⁶⁾ 나폴레옹 전쟁 이후 파견무관의 안전은 국제법으로 보장받았고 군이 주도하는 공격의 목표가 될 수 없었다. 만일 교전 당사국에 의해 사로잡힌다고 할지라도, 파견무관에 대한 석방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했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군수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보다 빠르게 대량으로 인명을 살해하는 무기들이 개발되었다. 각국에서 개발되는 최신무기에 대한 정보와 군사력 현황,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국가의 안보에 필수적인 정보들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집, 분류,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징병제가 실시되면서 국가가 시민을 대규모로 전장에 동원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전을 독려하는 선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파견 무관에게는 더욱더 전문화된 군사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함께 정치적 판단력도 요구되었다.²⁷⁾ 1870년대 30명에 불과했던 파견무관은 1914년에는 3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제국주의 시대 경쟁적으로 각국의 군사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조사, 분류, 유통시키는

25) 파견무관들은 러시아에서는 “military agent”, 영국에서는 “military secretaries of the embassy”, 프러시아에서는 “chargés of military affairs” 프랑스에서는 “military attachés”로 불렸다.

26) Steinberg, John W. et al.,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Brill, vol. II, 2007), pp. 143-144.

27) Prochasson, Christophe et Rasmussen, Anne dir., *Vrai et faux dans la Grande Guerre* (Paris: La Découverte, 2004), p. 135.

파견무관의 존재는 군대를 넘어 외교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 19세기 외교관들처럼 대다수의 파견무관은 귀족출신 엘리트들이었다. 국제적인 무정부 상태보다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추구하던 시기에 민족주의적 경쟁과 초국가적 연합(supranationalist combination)을 열강들은 동시에 추구하였다.²⁸⁾ 파견무관들은 귀족엘리트들로 외교가에서 자신들만의 트랜스내셔널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민족적 이해관계에 놓여있었지만, 때로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 열강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평화를 유지하는 행위자들이었다. 스위스와 프랑스를 제외하면 왕정체제가 지배하고 있었던 유럽이었기 때문에 귀족주의 전통은 외교가의 사교클럽 문화에 넓게 뿌리내렸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귀족의 사회적 지위가 약화되면서 파견무관의 귀족성도 조금은 약화되었다. 하지만 영국의 밀로드(milord), 프랑스의 귀족(noble), 프로이센의 융커(Junker)로 대표되는 귀족출신의 장교들이 제1차 세계대전 중 최고사령부를 움직였다. 이때까지 귀족세력의 영향력은 군대에서 무시 못 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벨기에, 스웨덴, 아르헨티나 등 다수의 국가들에서 파견된 약 27명의 파견무관은 러일전쟁의 전장을 가까이에서 관찰하였다. 각국에서 러시아, 일본어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된 고위 장교들이었다. 전장에서 집단적으로 이동하고 생활했고 포격을 비롯한 위험한 상황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파견무관들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동맹국의 파견무관이 아닐지라도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는데 위화감이 없었다. 하지만 군사동맹은 때로는 활동에 걸림돌이 되었다. 영국 파견무관의 경우 일본군에서는 환대를 받았지만 러시아군에서는 냉대를 받았고, 반대로 프랑스 파견무관은 일본군으로부터 큰 환대를 기대할 수 없었다. 파견무관들은 직접 목격한 전투의 결과에서부터 전략, 무기, 병참, 의료, 수송 등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를 작성해 본국으로 전송하였다. 군사 교육과 더불어 공학, 어학, 지리학, 역사 등의 교육을 받은 국제적인

28) Steinberg, John W. et al.,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vol. II), p. 137.

엘리트 파견무관들은 전쟁의 전술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인적자원의 배분, 명령의 수행상태, 민심의 상황 등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근대적 전쟁에서 나타나는 전투 양상의 변화, 전쟁에서 승리한 진영이 가진 승전 원인에 대한 분석은 미래의 전쟁을 예견할 수 있는 열쇠였고 군대 개혁에 필요한 영감을 제공하였다. 19세기 말 유럽에서는 평화가 지속되어 전쟁을 관찰할 기회가 없었던 프랑스 군부에게 러일전쟁은 미래의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였다. 1899년 보어전쟁, 1904년 러일전쟁을 비롯한 ‘주변부 전쟁(*guerres périphériques*)’을 참관한 파견무관에게는 대포, 소총, 공병, 통신 등 근대적 군사장비가 지닌 효율성에서부터 종합적인 군사력, 군수산업 생산력과 신무기개발 등에 대한 정보의 보고의무가 있었다. 때로는 파견된 지역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지식의 생산도 요청되었다.

파견된 무관들은 다른 국가에서 파견된 무관들과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때로는 우방국으로, 때로는 적국으로 각국 대표단을 만났다. 영국에서 파견된 해군장교는 일본군 측에 의해 환대 받아 함대를 시찰하거나 보다 가깝게 전선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러시아군에서는 반대였다. 프랑스 군의 경우는 전쟁에 대한 불간섭을 천명하며 제3국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양측 진영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네그리에 장군(Oscar de Négrier: 1839~1913), 도쿄 주재 대사관 무관이었던 코르비자르 중령(Charles Corvisart: 1857-1939), 그리고 베르탕(Charles-Émile Bertin: 1871~1959) 등을 파견하였다.²⁹⁾ 1884년 프랑스와 청나라의 전쟁에도 참전한 바 있는 네그리에를 비롯해 식민지 원정을 포함해 베트남, 일본, 조선에서 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동아시아 전문가들이었다. 영어, 일본어와 러시아어 능력 때문에 선발되어, 러일전쟁 후 무공훈장을

29) 영국에서 파견되어 일본군 측에서 활동한 이언 해밀턴(Ian Hamilton)은 대표적인 영국의 식민지 전쟁에 참전한 장교였다. 그는 1870년대부터 인도와 아프리카의 군사원정에 참여한 이래 보어전쟁 당시 참모장을 지냈고 1차 세계 대전 중에는 갈리폴리 전투를 지휘하였다.

수여받을 정도로 출세를 거듭하였다. 1905년~1907년 사이에 파견무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러일전쟁의 교훈(Enseignements de la guerre russo-japonaise)』이 출간되었다.³⁰⁾ 파견무관들은 19세기 말 군사적 지식을 아시아나 남아프리카에서의 원정 경험을 통해 습득하였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실제 전투현장에 활용되었다.³¹⁾ 파견무관은 출세에 발판이 되는 유용한 경력이었기 때문에 군 지휘부와 전쟁에 대한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어려웠다. 군 지휘부의 검열과 통제를 거친 후 출간된 『러일전쟁의 교훈』에 전쟁을 직접 경험한 파견무관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견해는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이전 징집된 대부분의 프랑스 병사들은 실제 전투의 경험을 가지지 못하였다. 평화적 시기인 군사적 대기상태에서 군인들의 임무는 병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반복적 훈련 밖에 없었다. 실제 ‘전투에 경험을 가진 군인(connu le feu)’과 가지지 못한 군인이 발휘하는 전장에서의 능력은 크게 차이가 났다. 군사적 전략에 대한 논쟁에 있어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었다. 식민지 원정이나 해외에서 벌어진 전쟁을 참관한 파견무관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과거의 전쟁이나 미래의 전쟁에 대한 논의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다. 참전경험이 없는 군인들과 민간에서 주장하는 간접적인 군사지식과 이론은 폄하되고 쉽게 부정될 정도로 전장의 경험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징병제가 수립되고 전쟁이 국가적 관심사로 변모하면서 민간 전문가들의 주장들도 커져만 갔다.³²⁾ 보어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황은 신문을 통해 프랑스 전역에 확산되었다. 전선에 파견된 통신원들은

30) France. Etat-major de l'armée de terre, *Enseignements de la guerre russo-japonaise* ([S. l.], 1905-1907).

31) Frémeaux, Jacques, *De quoi fut fait l'empire: Les guerres coloniales aux XIXe siècle* (Paris: CNRS ed, 2010), p. 401.

32) Cosson, Olivier, “Expériences de guerre et anticipation à la veille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Les milieux militaires franco-britanniques et les conflits extérieurs”,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n° 50(mars 2003).

취재의 자유를 제한적이지만 허용 받았다. 여론의 향배가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좌우할 것이라 예상한 전쟁 당사국들은 자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선전에 활용하고 싶어 하였다. 프랑스에서 보어전쟁은 자유로운 공화주의자들과 압제적인 대영제국 사이의 투쟁으로 받아들여졌다. 전쟁에 참전한 군인과 목격한 기자, 지식인, 일반시민의 전쟁에 대한 증언은 대중의 주된 관심사였다. 대중적인 잡지와 신문에서는 기자,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민간인 출신 군사전문가들의 전쟁 담론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장교들은 기자와 지식인이 작성한 전황분석과 전쟁전략을 자격 없는 자들의 무가치한 언설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보어전쟁을 거치면서 프랑스 군부는 자신들이 내세운 군사적 전략에 대한 대중적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을 우려해 여론을 통제할 필요성을 느꼈다. 주변부 전쟁이 대중들의 관심을 차지하게 되면서 전쟁에 대한 독점적 군의 지적권위는 약화되고 있었다. 결국 군사적 지식에 대한 권위를 유지하려는 군부의 태도는 러일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았다.

“남아프리카 전쟁 이후 만들어진 결론은 설부른 것이었습니다. 보어인들의 놀라운 방어력과 숙달된 사격능력은 모든 군대가 활용하는 방어 전략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발생한 군사적 사건들에 대한 명료한 연구는 널리 알려진 이 궤변이 가진 오류를 증명하였습니다.”³³⁾

이상의 파견무관의 보고서는 보어전쟁 중 기자들이 강조한 방어전의 중요성을 러일 전쟁을 통해 부인하고 있다. 정면 공격은 자살행위에 가까운 무모한 전술이기에 수적 우위에 있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일본군의 정면공격이 러시아의 방어선을 효율적으로 무너트렸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33) “Enseignements de la guerre russo-japonaise”, note n° 16, “Les enseignements”, mars 1907, Service Historique de l’Armée de Terre(이하 S.H.A.T), Paris, 7 N° 1532.

보어전쟁으로 대표되는 열강의 식민지 전쟁은 기본적으로 ‘국지전(limited war)’이었다. 이것은 전쟁의 참여국이 총체적인 국력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목표와 제한된 지역에서 치르는 전쟁이었다. 주로 농작물, 마을 가축, 창고를 파괴해 적의 피난처나 물자 공급원을 차단하는 초도화전술이 사용된 식민지 전쟁에서 유럽군대는 군사장비의 압도적 우월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병사의 수는 반란군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랐다. 이러한 병력의 비대칭성 속에서 식민지 전쟁에서 유럽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는 오로지 군사장비의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이었다.³⁴⁾ 또한 식민지 전쟁은 군 지휘부가 부재한 상태에서 전개되었다. 부대가 적대적인 공간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병사 개개인의 사기, 용기, 의지가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정당한 수단으로 간주된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전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국가의 이익과 주권을 수호하는 전쟁은 전쟁 후 결과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전제하고 시작되었다. 선전포고에서부터 시작해 영토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협, 전쟁 결단, 참전, 항복 등의 국면으로 구성된 유럽에서의 전쟁은 단기적이면서도 격렬한 결전으로 종료되었다. 결전이론에 따른 전투는 제한된 지역으로 한정되었고 단지 배치된 군인들 사이의 전쟁이었다. 그러나 보불전쟁과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전쟁 양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소총 사격의 위력과 방어력이 새롭게 부각되었고 기관총의 방어력은 아직 충분하지 않았지만 현대적 대포의 파괴적인 위력, 철도를 통한 효율적인 병력 동원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게 되었다.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는 식민지 전쟁에서 종종 상실되었으며 전쟁이 근대화 될 수록 조직된 전투원 사이의 제한적 전투는 어려워졌다.

34) 영국의 식민지 원정은 19세기 초반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1834~43년 아프가니스탄 침략에서 실패했고 1857~58년 세포이 항쟁에서도 반란군을 어렵게 진압하였다. 또한 1878년 남아프리카 зу루족과의 전투에서는 일시적인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84년 맥심 기관총이 개발되면서 완전히 원주민의 군사력을 압도하기 시작하였다.

IV. 0차 세계대전에서 1차 세계대전으로

1870년과 1914년 사이 근대적 군수산업과 기술이 낳은 대포, 소총, 기관총 등에서 나타난 고성능 원거리 무기의 발전은 급진적이었다. 1870년 보불전쟁에서 분당 4만여 발의 포탄이 발사된 데 비해, 1914년에는 재장전이 빨라진 후장식 대포로 분당 20만 발의 포탄이 발사되었다.³⁵⁾ 또한 포선에 강선을 넣어 사정거리가 대폭 늘어났고 포탄의 폭발력도 높아졌다. 프랑스군이 보유한 대포의 화력은 이 기간 동안 5배 이상 증가하였다. 러일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날 근대적 군사무기의 혁신을 과도기적으로 보여주었다. 1870년대 생산된 대포는 분당 4~5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지만, 1905년 러시아와 일본의 대포는 정비할 필요 없이, 1분간 연속적으로 10~15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다. 게다가 흑색화약을 사용해 발사되던 쏫덩어리 포탄에 비해 조각으로 폭발하는 포탄의 위력은 비할 수 없이 강력하였다. 대포의 긴 사거리와 높은 폭발력은 전쟁의 참화를 확대시켰다.

대포와 더불어 소총에서도 기술적 혁신은 나타났다. 구경이 좁아 가볍고, 탄환이 쉽게 장전되는 소총이 개발되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진 소총은 개개인 병사의 전투력을 높였고 탄환의 사용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1877년 병사 한 명이 90여 개의 탄약통을 평균적으로 휴대하였지만, 1914년에는 200여 개의 탄약통을 보급 받았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향상된 소총은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러일전쟁을 참관한 파견무관들은 병사들이 전장에서 많은 수의 탄약을 휴대하는 것을 특별히 선호했다고 기록하였다.³⁶⁾ 또한 금속제 탄피가 개발되어 탄환은 더 이상 연기를 내뿜지도 않았고 날씨의 영향도 적게 받았다. 아군끼리의 교전을 피하기 위해 이용된 화려한 색의

35)버나드 로 몽고메리, 송영조 역, 『전쟁의 역사』 (서울: 책세상, 2004), 748쪽.

36)Cosson, Olivier, “Expériences de guerre et anticipation à la veille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p. 137.

군복은 더 이상 전투에서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 화려한 색의 군복은 쉽게 적군의 표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장을 고려한 실용적인 군복이 보급되었다.

가장 큰 군사장비의 혁신은 기관총에서 나타났다. 1884년 맥심기관총(Maxim gun)의 발명은 근대적 자동화기의 시대를 열었다. 유연한 벨트로 공급되어 분당 600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기관총은 이전 시대의 무기가 지닌 살상능력을 완벽히 초월하였다.³⁷⁾ 기관총의 군사적 장점은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4), 미국-스페인 전쟁(1898), 영국의 수단 원정(1881~1899)과 북서부 인도 원정(1878~1880)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의 혁신은 군사전술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무기의 근대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전술의 근대화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식민지에서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은 유럽의 군사 전략가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소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사력을 가진 기관총의 위력은 러일전쟁의 전장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203 고지전투로 대표되는 155일간 벌어진 ‘뤼순항 점령전투’에서 철조망, 기관총, 대포로 방어되는 적진지를 향한 보병들의 정면공격, 즉 ‘돌격 앞으로’는 재앙적 결과를 낳았다. 전장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병력이 국가의 동원력에 기대어 투입되었다. 약 5만 여명의 러시아군과 약 8만~15만 여명의 일본군이 동원된 이 전투에서 약 3만 명의 러시아군과 약 5만 7천여 명의 일본군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기관총으로 대표되는 대량살상무기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주의 시대가 낳은 산물이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³⁸⁾

37) 미국에서 개발된 개틀링 건(gatling-gun)과 영국의 폼폼(pom-pom Nordenfeldt)은 이 시대의 기관총을 대표하였다.

3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Ellis, John, *The Social History of the Machine Gun* (London: Pimlico, 1993 [1976]); 존 엘리스, 정병선 역, 『트렌치 코트에 낭만은 없었다: 참호에 갇힌 제1차 세계대전』 (고양: 마티, 2006)를 참고하십시오.

근대적 병기의 전시장이었던 러일전쟁을 관찰한 프랑스 장교는 “승리의 본질적인 요소는 포병대의 우위”에서 확보되고 “처음으로 우리는 포병대의 포격으로 적군의 진전을 멈출 수 있게 되었다”라며 방어전에서 활용되는 포병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였다.³⁹⁾ 포격은 아군의 참호로 전진하는 적군을 저지하는 효과적 수단이었기 때문에 집중포격은 공격 시 필수적이었다.

대규모 병력이 동원된 참호전에서 전장이 확대됨에 따라 전투의 양상은 복잡하고 혼돈스럽게 전개되었다. “소총의 소리가 머리를 울리고, 적군과 아군의 포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휘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의 전달은 쉽지 않았다.⁴⁰⁾ 연속적인 총격과 포격 속에서 전장의 지휘관은 전투의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기 힘들었다. 대포의 사정거리가 6~7km까지 늘어나 전장에서 안전한 지대는 사라졌다. 파견무관들도 빈번하게 대포의 목표물이 될 수 있었다.

만주에서 충돌한 러시아군과 일본군의 전장에는 위장막을 씌운 참호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비록 위장막으로 가려졌지만, 적군은 먼 거리에서 발견해 참호와 진지로 대포를 발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거리 포격에 군인들은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생명의 위협을 상시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응하기도 어려웠다. 이전의 대포와 달리 포격 중 대포가 연기를 내뿜지 않았기 때문에 포격을 하는 적군의 위치를 쉽게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소총, 기관총, 대포의 화력은 전장에서 방어적 이동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전투에서 지형을 이용한 위장과 엄호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병력의 이동은 적군에 의해 쉽게 발각되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전장에서의 밤은 더욱더 위험해졌다. 조급의 불빛이 새어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위치가 발각되어 포탄이 날아들었다. 넓어진 전선으로 인해 부상병의 치료와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전선이 넓어지면서 부상병의

39) “Observations sur l’artillerie dans la guerre russo-japonaise”, S.H.A.T., 7 N° 1532.

40) “Enseignements de la guerre russo-japonaise”, note n° 9, “fusil et tir de l’infanterie”, février 1906, S.H.A.T., 7 N° 1532.

이동거리가 늘어났다. 야전병원은 대포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부상병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동 중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야전병원으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병사들만이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전장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러일전쟁이 보여준 가장 큰 전쟁의 변화는 소모전과 장기전이였다. 러일전쟁에서 단기적 결전은 사라졌다. 개별 전장에서 이어진 전투의 기간은 몇 주간을 쉽게 넘길 정도로 길어졌다. 프랑스 파견무관의 보고서는 전투의 장기화와 소모전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하였다.

“전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격렬한 전투가 10일 혹은 그 이상으로 진행된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군사력과 장비가 완전히 소진된 이후 병사, 탄약, 장비, 말 등을 정비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단순한 안전한 방어선을 넘는 전선을 구축, 그리고 상설 혹은 비상설 요새를 설치하기 위한 전장의 소강상태는 한 달 이상이 진행되었다.”⁴¹⁾

포격과 기관총이 빗발치는 장기화된 전투에서 실제 소총을 소지한 병사들은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적군이 가까이 접근하면 감히 조준 사격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⁴²⁾ 소총은 오로지 근접전에서는 유효했고, 병사들은 공포감에 휩싸여 총알을 소진 할 뿐이었다. 참호전에서 적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무기의 유효성은 “근대 군사기술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발견”⁴³⁾이었다. 만주에서 벌어진 여러 전투에서 공격자는 방어자에 비해 압도적인 사상자를 감내해야만 했다.

41) “Enseignements tactiques de la guerre”, G. Moulin, rapport du G. Mylov, commandant le VIII^e Corps d’Armée russe, juillet 1905, S.H.A.T., 7 N° 1521.

42) *ibid.*; 가스통 르루, 이주영 역, 『러일전쟁, 제물포의 영웅들』 (인천: 작가들, 2006).

43) Conférence du Cpt d’Etat-Major Solviev, in “Enseignements de la guerre russo-japonaise”, note n° 2, “Mitralleuses”, décembre 1905, S.H.A.T., 7 N° 1532.

참호 속에서 “일본병사는 러시아병사와 마찬가지로 빗발치는 총알과 파괴의 공포 앞에서 엎드려 숨을 수밖에”⁴⁴⁾ 없었지만, 장교들은 전장에서 은폐하거나 몸을 숙이는 것을 명예롭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보병 화력에 대한 새로운 전술과 편성, 그리고 참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었지만 대부분의 장교들은 군사적 ‘정신주의’만을 강조했다. 군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정신 상태만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군인정신에 기대어 무모한 공격전술을 고집한 지휘관들 때문에 러일전쟁의 사상자 수는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3개월간 지속된 선양 전투를 일본군 측에서 관전한 프랑스 장교는 다음과 같이 일본군의 피해를 서술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작전에서 계속 증가하는 사상자의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선양전투 이전 다시 말해 1905년 2월 말에는 최소 26000명으로 구성되어있던 남부여단(3사단)의 한 연대는 3월 8일에는 30명의 사병과 4명의 장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⁴⁵⁾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무관들은 무기의 진화에 따른 전술적 변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전후 프랑스로 귀환한 파견무관들이 작성한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일본군은 고무된 사기와 정신력의 우위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거나, 일본군의 “도덕적 품성”으로 인해 일본이 승리했다고 결론 내린다.⁴⁶⁾ 보고서에는 러시아의 패배에 대한 파견무관들의 실망감이 반영되었겠지만, 일본군의 군사적 장비와 전술적 능력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패배는 오로지 일본군이 지닌 용맹함과 국내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러시아 황제의 무능, 그리고 참전한 러시아 군의 부족한

44) *ibid.*

45) “Rapport d'ensemble du Chef de la Mission Militaire Française à l'armée japonaise”, General Lombard, décembre, 1905, S.H.A.T. 7 N° 1700.

46) “Enseignements de la guerre russo-japonaise: psychologie”, Cd Bouché, janvier 1905, S.H.A.T., 7 N° 1532.

군인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보고서의 결론은 프랑스 파견무관 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다른 파견무관들의 보고서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러일전쟁에서 기관총과 대포로 상징되는 근대적 군사무기의 힘은 공격자보다는 수비자에게 압도적 전술적 우위를 안겨 주었다. 하지만 프랑스 파견무관은 뒤순항 공방전 중 포위공격을 감행하면서 사망한 약 6만 일본군의 허망한 죽음을 오로지 용맹한 돌격정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강조하였다.⁴⁷⁾ 뒤순항 전투에서 일본군은 대포를 활용한 포격, 기관총과 철조망으로 보호되고 있던 방어선을 쉽게 뚫어내지 못했다. 203 고지의 전투에서 약 90%의 일본군이 사망했을 정도였다.⁴⁸⁾ 이는 용기와 정신력의 승리가 아니라 무모한 공격이자 지휘관의 전술적 대처가 없는 가운데 발생한 무수한 사상자를 낳은 참사에 불과하였다.⁴⁹⁾ 프랑스 파견무관들은 직접 러일전쟁의 참화를 눈으로 목격하고 전쟁의 양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로 귀환해서는 자신들의 경험과 기존 군사지식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지휘관의 개입과 자신들의 경험을 전쟁의 실체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상상된 전쟁(guerre imaginé)’을 구성하는 데 머물렀다.

V. 결론

러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종군기자 자격으로 조선에 파견된 잭 런던은 『1904년 러일전쟁 종군기』에서 “전투가 간단하고 무기가 투박했을 때에 살상은 대규모로 일어났다. 적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전투는 결정적이었다. 거의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결정적 전투가 가능했다. (...)

47) 1904년 8월 19일 203 고지의 사상자 중 90%는 일본군이었다.

48) 뒤순항 전투 중 발생한 전장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Lan Hamilton, *A Staff Officer's Scrap book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London, 1906).

49) Cosson, Olivier, “Des guerres annonciatrices du nouveau siècle ? : Guerre des Boers et guerre russo-japonaise”, in François Guedj dir., *Le XXesiècle des guerres* (Paris: Ed. de l'Atelier, 2004), pp. 50-58.

그러나 앞으로 최소한 문명국들 간의 전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⁵⁰⁾이라 생각하였다. 비록 인종주의적 편견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지만 그가 보고, 체험한 전쟁은 이전과 다른 전쟁이었다.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유럽의 군사전문가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벌어진 러일전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 군사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다. 군사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비슷한 수준의 군사장비와 비슷한 규모의 병력을 갖춘 국가 간 전쟁, 즉 군사력에서의 대칭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크림전쟁은 이미 오래되어 군사기술이나 전략 면에서 현재성이 떨어졌고, 보어전쟁은 식민지 전쟁의 특정한 게릴라전의 양상으로 전개되어 미래전쟁의 모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견무관들은 대포의 사정거리에서부터 무기의 세세한 성능을 유심히 관찰할 수 있었고 각 부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총력전의 양상을 직접 체험하고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 특히, 기계보다 인간을 더 신뢰한 고급장교들은 러일전쟁과 보어전쟁 등에서 남겨진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귀족주의적 의식에 집착했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변모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용기와 천재성에 집착했기 때문에 근대 군사무기가 지닌 대량살상능력을 외면하였다. 방어전이 가진 전술적 이점을 망각한 채 전쟁을 오로지 공세적 돌격으로 해결하려 했다. 군인의 용감한 공격정신(l'esprit offensif)과 희생정신(l'esprit de sacrifice)은 프랑스 군대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군사적 '정신주의'를 러일전쟁의 교훈으로 이해한 군부는 제1차 세계대전까지 자신의 신념과 전술을 버리지 않았다. 전쟁이 장기화 되고 전쟁에서 시민과 군인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현상은 식민지 전쟁에서 이미 나타났다. 한테 파견무관들은 전쟁을 통제, 관리, 제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러일전쟁에 파견된 파견무관들은 전쟁을 참관했을 뿐 그 실상은 보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전선에서 근대적 전쟁을 경험하면서도 그 성격을

50) 잭 런던, 『잭 런던의 조선사람 엿보기: 1904년 러일전쟁 종군기』, 172쪽.

프랑스 파견무관(attaché militaire)이 본 러일전쟁

파악하지 못하였다. 프랑스 정부 역시 러일전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전망이 부재하였다. 전쟁발발 직전 참모부가 보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교부가 수립한 전쟁결과에 대한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전쟁을 직접 가까이에서 관찰한 파견무관들이 전쟁에서 나타난 근대적 무기(기관총, 대포)가 변화시킨 전쟁양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포격으로 전방과 후방의 경계가 사라져 전장이 확대되고,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 없이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는 총력전, 소모전이 가져올 파멸적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1차 세계대전까지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관에 머물렀다.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 칼리지 초빙교수, mentend@gmail.com

주제어(key words):

러일전쟁(The russ-japanese war), 식민지전쟁(colonial war), 총력전(total war), 인종주의(racism), 프랑스(France)

(투고일: 2019. 10. 15 , 심사일: 2019. 11. 07 , 게재확정일: 2019. 11. 07)

<국문초록>

프랑스 파견무관(attaché militaire)이 본 러일전쟁:
제0차 세계대전에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문 종 현

프랑스 파견무관들은 근대적 전쟁을 러일전쟁을 통해 경험하면서도 전쟁의 근대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프랑스 본국의 참모부 또한 러일전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전망이 부재하였다. 전쟁발발 직전 전쟁부가 생산한 정보에 바탕을 둔 프랑스 외교부와 전쟁부가 수립한 전쟁결과에 대한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전쟁을 직접 가까이에서 관찰한 파견무관들이 전쟁에서 나타난 근대적 무기(기관총, 대포)가 변환시킨 전쟁양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나타났던 원거리 포격으로 전장이 확장되고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총력전과 참호전이 낳은 파멸적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관에 머물렀다.

<Abstract>

The russ-japanese war (1904~1905) studied by french military observer: from world war 0 to world war I.

Moon, Jonghyun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french military observer during the russ-japanese war. The development of the regular military attaché system shared similar roots of the plenipotentiary emissaries in 19th century. During the russ-japanese war, the french military attaché, nothing in the Far-Eastern Asia experience required a revision of their manuals. The french observers' comments were often twisted to support concepts of offensive mobility and firepower which, combined with élan and an aggressive "sprit", would permit successful strategic envelopments and the decisive battles needed to grantee a shot conflict. Therefore, the military lessons finally learned from their reports were of questionable value in 1914.

참 고 문 헌

1. 사료

Archives du ministère français des affaires étrangères, “Japon”, NS-33.

Archives du ministère français des affaires étrangères, “Chine”, n° 197.

France, *Document diplomatique français*, 2e série, T. IV.

Service Historique de l'Armée de Terre(S.H.A.T), 7 N° 1532; 7 N° 1700.

2. 단행본

가스통 르루, 이주영 역, 『러일전쟁, 제물포의 영웅들』 (인천: 작가들, 2006).

버나드 로 몽고메리, 송영조 역, 『전쟁의 역사』 (서울: 책세상, 2004).

잭 런던, 윤미기 역, 『잭 런던의 조선사람 엿보기: 1904년 러일전쟁 종군기』 (서울: 한울, 1995).

존 엘리스, 정병선 역, 『트렌치 코트에 낭만은 없었다: 참호에 갇힌 제1차 세계대전』 (고양: 마티, 2006).

France. Etat-major de l'armée de terre, *Enseignements de la guerre russo-japonaise* ([S. l.], 1905-1907).

Frémeaux, Jacques, *De quoi fut fait l'empire: Les guerres coloniales aux XIXe siècle* (Paris: CNRS ed, 2010).

Ganiage, Jean, *L'Expansion coloniale de la France : sous la troisième république (1871-1914)* (Paris: Payot, 1968).

Guedj, François, *Le XXe Siècle des guerres* (Paris: Editions de

- l'Atelier, 2004).
- Kowner, Rotem ed., *The impact of the Russo-Japanese War* (London: Routledge, 2007).
- Nish, Ian, *The origins of the Russo-Japanese war* (London & New-York: Longman, 1985).
- Paléologue, Maurice, *Un grand tournant de la politique mondiale 1904-1906* (Paris: Plon, 1934).
- Prochasson, Christophe et Rasmussen, Anne dir., *Vrai et faux dans la Grande Guerre* (Paris: La Découverte, 2004).
- Renouvin, Pierre, *La Question d'Extrême-Orient: 1894~1905* (Paris: Centre de documentation universitaire, 1952).
- Steinberg, John W. et al.,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world war zero* (Brill, vol. I, 2005).
- _____,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world war zero* (Brill, vol. II, 2007).

3. 논문

- 이주천, 「러일전쟁 110주년을 기념하여-과거 10년 동안의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33집(2014.12).
- Moon, JongHyun, *La guerre russo-japonaise (1904-1905) et une diffusion du péril jaune: Une étude sur les rapports entre la guerre et la représentation des Asiatiques* (These, Université Paris VII, 2014).
- Cosson, Olivier, “Expériences de guerre et anticipation à la veille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Les milieux militaires franco-britanniques et les conflits extérieurs”,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n° 50(mars 2003).